

‘전기료 폭탄’ 이 정도일 줄은...자영업자 시름 깊어간다

광주 20평 고깃집 7월 전기료 132만원...전년대비 50% 경증 휴가철 겹쳐 매출 곤두박질 “소상공인 체감 에너지 대책 필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50%나 더 나왔어요. 장마 때 손님이 뜸하더니, 이젠 폭염 때문에 아예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이리다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에서 약 66㎡(20평) 규모의 한우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3)씨는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고지서 적힌 청구요금이 132만1250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한 전력사용량은 4717kWh. 지난해 9월엔 이보다 많은 4816kWh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88만710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보다 적게 쓰고도 1.5배 더 많은 요금이 나온 것이다.

그는 “전기요금이 6월부터 인상 적용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올 여름은 유독 더워 최근 에어컨 사용량이 많았는데, 다음 달 요금은 얼마나 더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불판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 열기로 인해 실내온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기료를 아끼자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다, 단골손님마저 잃을 수 있다고 한다.

김씨는 “무더위로 불 앞에서 고기를 먹는 손님이 줄고 휴가철까지 겹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식재료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냉방비 부담마저 커져 이리다간 본전도 못 건지겠다”고 울먹였

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서 330㎡(100평) 규모의 반려동물 용품점을 운영 중인 박모(32)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박씨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에어컨 사용량을 줄였는데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받아 충격을 받았다.

그가 한달(6월 17일~7월 16일)간 사용한 전력량은 5120kWh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906kWh를 사용해 99만8920원의 요금이 나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용량을 13%나 줄였는데도 106만40원이 나오는 등 요금은 오히려 6% 넘게 더 나왔다고 한다.

박씨는 “날씨가 더워져서 손님들 발길이 줄었다. 손님이 없어 에어컨 가동을 줄이려고 해도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이 ‘덥다’면서 불만을 표출한다”며 “무더위로 매출이 줄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례적인 폭염 속에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예견됐던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올랐다. 해당 기간 전기요금은 kW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이 39.6%에 달한다.

특히 호남지방통계청의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봐도 지난해 광주의 생활물가지수 전기료는 전년 대비 20.5%나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역시 전기료 물가 상승률이 25%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날씨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뛰고 고장비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분석이다.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 상한선을 높이고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차감해 주는 ‘에너지캐시백’도 진행 중이지만, ‘주택 전용(주거용)’에만 해당해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물러설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정부를 상대로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불볕더위에 소상공인의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고, 이 기간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주 7~8일 전력 수요 ‘최고조’

태풍 ‘카눈’ 영향 열기 화요일까지 지속...전력 수급은 안정적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7~8일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력 피크 준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에 걸쳐 전력 수요가 각각 92.9GW(기가와트)로 올여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날 발표에서는 오는 10일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날 새벽까지의 최신 기상 예보를 반영해 최고 전력 수요 예상 시점을 다소 앞당겼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8일 전력 공급 능력이 각각 103.5~103.6GW에 달해 예비율이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10GW는 원전 10기가 동시에 공급하는 발전

력에 해당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호남 등 남부 지방의 날씨가 흐려져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지거나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간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 수급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예비력이 10.7G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기업 등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수요반응’(DR),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정지, 석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통해 9.1GW의 예비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 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특별 할인판매” 속지 마세요

A씨는 B업체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한 가상자산을 특별히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 3개월간 코인 매도와 출금을 정지시키면서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업체는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으면서 거래를 2개월간 추가 제한했다. 매도가 미뤄지면서 A씨가 산 코인 가격은 구매 가격의 10분의 1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

사기 사례·유의사항 안내 등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6월부터 406건 신고 접수

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자금 사정 악화”

지난 연말보다 10%p 올라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하루가 달리 악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회원사 500개여사를 대상으로 ‘금융 애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무려 65.6%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악화’가 49.2%, ‘매우 악화’가 16.4%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같은 조사 때의 45.6%보다 10%포인트나 더 상승했다. 앞으로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수출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사 때 기업들은 자금 사정 악화 원인으로 ‘금리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매출 부진’을 꼽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도 크지만, 고금리 장기

화로 인한 소비침체와 구매력 위축 등이 기업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조사 기업 중 54.0%는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답했다. 자금난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 축소’(27.6%), ‘인력 감축’(20.0%), ‘사업 구조조정’(15.8%) 등 조직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조사에 참여한 수출 기업의 77.3%는 현재 지원 받는 정책 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금리 부담 완화’(79.0%이하 중복 선택 가능)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출·신용 보증 한도 확대’(63.6%),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유예’(41.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고금리 완화가 여의치 않다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의 현재 업체당 통합 보증 한도를 3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 보증 기관의 중복 보증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1년 반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하며 지난 2021년 1분기(14.1%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 젊음의거리 음식점 배너를 지나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초전도체 테마주’ 오늘도 급등...변동성 커

서원·덕성·대창 등 상한가까지 올라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상온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3일에도 급등했다.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던 종목들 일부는 갑자기 급락해 약세로 전환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원(29.98%), 덕성(29.89%), 대창(29.99%) 등이 상한가까지 올랐다. 장중 급격한 변동성에 LS전선아시아는 26.33%까지 올랐으나 상승 폭을 되돌리고 7.72% 오른 채 마감했고,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되는 고려제강은 장중 최고 26.33% 올랐다가 하락 반전해 3.36% 내린 채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서남(29.94%), 국일신동(30.0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비스는

19.40% 오른 채 마감했다.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퀀텀 에너지연구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파워로직스, 신성펠터테크는 장중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다가 각각 보합(0.0%), 약보합(-0.98%)권에서 장을 마쳤다.

전원공급장치 매출이 있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된 원익피앤이 역시 최고 24.0%까지 오르다가 최저 12.17% 떨어지는 등 위아래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8.25% 하락한 채로 마감했다.

중시에서 ‘초전도체 테마주’가 형성됐지만, 과학계에서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고,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과 초전도체 간 뚜렷한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높은 외식물가에 음식점·주점 안가”

소비 1년 반만에 감소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1년 반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소비 증가 폭이 높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높은 외식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14.1%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음식점·주점업 소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가 2021년 4분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증가세는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계속됐지만 2분기 다시 큰 폭으로 고꾸라졌다.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2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3.5% 줄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높은 외식 물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3분기 21년 만에 최대 폭인 8.7%나 상승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분기까지 7~8%의 높은 증가 폭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장기화로 곡물·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올여름 폭염·폭우 등이

상기후까지 겹친 탓이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수준이 높았던 점도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감소 폭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비 감소에는 기저효과에 더해 높은 외식 물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5.39(-11.08)
↑ 코스닥	920.32(+10.56)
↑ 금리(국고채 3년)	3.714(+0.037)
↑ 환율(USD)	1299.10(+0.60)